

코로나19 3년 '확 바뀐 소비 패턴'

●국세통계포털 '광주·전남 100대 생활업종 분석'

호프·노래방 등 '음주가무' 관련 업종은 급감
헬스클럽·피부샵 등 '자기 관리' 분야로 이동
배달 호황에 식당·커피전문점 뚜렷한 증가세

코로나19 3년을 겪으면서 광주·전남 지역 소비패턴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회식문화와 함께 호프집, 노래방 등이 성업했지만 3년 간의 방역조치로 해당 업체들은 쇠퇴한 반면,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늘면서 헬스·피부관리·실내장식(인테리어) 등의 사업자 수는 급증했다.

12일 국세통계포털(TASIS)의 국세

통계 '100대 생활업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100대 업종 사업자 수는 각각 8만1천939명, 9만9천21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9월 말(7만184명, 8만4천990명) 대비 동일하게 16.7% 늘었다.

특히 이 기간 광주·전남에서는 호프·노래방 등 '음주가무' 사업자 수가 크게 줄었고 헬스장·실내스크린골프점 등 체

육 분야와 커피·음식점 업종의 사업자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광주에서는 간이주점(188명→140명, -25.0%), 호프전문점(2천328명→1천804명, -22.5%), 피시방(406명→362명, -10.8%), 노래방(1천72명→944명, -7.2%) 등이 일제히 감소했다.

또 음식점(26명→17명, -34.6%)도 사업자 수가 대폭 줄었다. 실제 광주·전남의 혼인건수는 2019년 각각 6천297건·7천413건에서 2020년 5천560건·6천365건, 2021년 4천901건·6천201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건강보조식품 가게(394명→720명, 82.7%), 실내스크린골프점(113명→188명, 66.3%), 헬스클럽(226명→315명, 39.3%), 스포츠시설운영업(239명→307명, 28.4%) 등 건강·스포츠 관련 사

업을 비롯해 피부관리업(1천567명→2천199명, 40.3%), 실내장식점(1천972명→2천749명, 39.4%) 등은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음주가무가 주가 되던 회식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대신, 운동이나 피부관리에 투자하면서 헬스클럽과 피부관리실 등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기간 특수를 맞았던 배달시장 호황에 요식업과 커피음료점 사업자 수도 급증했다. 2019년 9조7천억 원 수준이었던 국내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지난해 25조7천억으로 코로나19 이후 3년 사이 2.5배 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2면에 계속
/영시원기자



완성차 정상 출하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후 본격적인 물류 운송이 시작된 12일 오전 KIA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완성차를 옮기는 카 캐리어의 현장 복귀로 정상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KIA 광주공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해 개별 도로 운송(로드 트럭)을 시행했었다.
/김애리기자

근로자·자영업자 모두 실질소득 줄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근로자 5% 급감
김희재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 외칠 때가 아냐"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근로자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

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총자산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고용 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

%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김희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진·기업 부실 등으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전망이 다수"라며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를 외칠 때가 아니라 재정 투자로 내수를 끌어 올려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희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진·기업 부실 등으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전망이 다수"라며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를 외칠 때가 아니라 재정 투자로 내수를 끌어 올려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알림

'2023 희망을 노래하다'

배아현 신년콘서트...1월5일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융복합미디어로 지역 문화 창달에 앞장서 온 광주매일신문이 2023 새해를 맞아 '희망을 노래하다' 신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023년 1월5일(목) 오후 6시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희망 콘서트에는 가수 배아현(사진)이 출연해 '배 띄워라', '선비 좋아 마세요', '백년초' 등 히트곡을 주옥같은 멜로디와 함께 감성 깊은 목소리로 선보입니다.

배아현은 2015년 제1회 이호성 가요제 대상을 비롯, 2020년에는 'SB S TV 트롯신이 떴다 2'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으로 주목을 받은 트로트계의 떠오르는 신인입니다.

또 이날 콘서트에는 진아람, 빅맨싱어즈 등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수들이 출연해 의미를 더합니다.



새해를 맞아 희망을 노래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신년콘서트에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 연 명: 2023 희망을 노래하다
- 일 시: 2023년 1월5일(목) 오후 6시
- 장 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
-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사
-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오늘 밤부터 눈...강추위 시작

광주·전남지역에 13일 밤부터 눈이 내린 뒤 강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9시 전남 서해안부터 시작된 눈·비는 14일 정오까지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4일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5cm 사이로 예보됐다.

▶관련기사 2면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최저기온도 영하를 밑도는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광주·전남은 흑산도를 제외하곤 모두 최저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겠다. 이날 최저기온은 담양·곡성 영하 6도, 장성·화순·보성 영하 5도, 광주 영하 2도로 예보됐다.

15일 순천과 나주는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다. 나머지 지역은 영하 3도-영상 2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광주·전남은 13일 밤부터 눈이 내린 뒤 강한 바람과 함께 추워지겠다"며 "추위로 인한 건강관리와 함께 빙판길 보행자·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영기자

Today

- 양금덕 할머니 서훈 취소 반발 확산 7면
- 광주문인협회 문학마당 15면
- 영암 출신 유해란 LPG가 간다 16면

희망2023 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성금 접수 계좌
* 광주사랑의열매 : 053-107-999990(광주은행)
* 전남사랑의열매 : 301-4000-3000-01(농협은행)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해상풍력

누소충전소

태양광

hydrogen fuel cell

누소 선박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펼쳐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지구를 지키는 전남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